

20세기 초 유성기 음반으로 본 모음 ‘ㅛ, ㅠ’의 발음에 대하여*

조아람**

차례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 3.1. ‘ㅛ’의 실현 양상
 - 3.2. ‘ㅠ’의 실현 양상
4. 정리 및 논의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920~40년대 유성기 대중가요 음반의 음성자료를 중심으로 모음 ‘ㅛ, ㅠ’의 음가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신나라 레코드》에서 발매한 ‘유성기 대중가요 음반세트’의 CD 23장이다. 총 28명의 가수가 노래한 156곡 중에서 모음 ‘ㅛ’나 ‘ㅠ’를 포함한 297음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모음 ‘ㅛ’의 경우 주로 /w/계 상향 이중모음으로 가장 많이 발음되었고, 나머지는 단모음 [Ø], [e], [i], [o], [y] 등으로 발음되었다. 단모음 [Ø]는 ‘ㅠ’의 단모음 [y]에 비해서는 많이 발음되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동북지역에서 발음되었다. 반면, 동남지역의 발음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가장 여러 가지의 발음

* 이 논문은 졸고(2012)의 자료를 가지고 수정·보완하여 2014년 여름 반교어문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재수정한 글이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을 하고 있다. 모음 ‘ㅛ’는 동북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미 상향 이중모음의 발음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며, 드물게 단모음 [Ø]가 발음되었고, 선·후행 요소나 개인차에 따라 수의적으로 발음되는 다른 발음들을 볼 수 있었다.

모음 ‘ㄱ’ 역시 /w/계 상향 이중모음으로 가장 많이 발음되었다. 모음 ‘ㅛ’의 발음처럼 [we], [ʷe] 등의 발음도 조금 있었는데, ‘ㅛ’와 다른 점은 하향 이중모음 [uj]의 발음이 적은 수이지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단모음으로는 [y], [i], [u], [e] 등의 발음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단모음 [y]의 발음은 ‘ㅛ’에서 나타난 단모음 [Ø]와 비교하면 적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서북 동북지역에서 각각 두 번씩, 서남 동남지역에서 한 번씩 나타나는 등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음 ‘ㅛ’는 하향 이중모음([oi/oj])의 발음을 보이지 않은 반면, 모음 ‘ㄱ’는 하향 이중모음([ui])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음 ‘ㅛ’에 비해 그 음가의 변화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제어】 유성기 음반, 음성 자료, 모음 ‘ㅛ, ㄱ’, 대중가요, 프라트, 이중모음, 단모음화

1. 서론

중세국어의 ‘ㄴ, ㄹ, ㅛ, ㄱ’ 등은 주지하듯이 이중모음이었으며, 반모음 /j/나 모음 /i/가 후행하는 이중모음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음은 현대국어에 와서 모두 단모음 체계에 속하게 되었다. 특히 모음 ‘ㅛ, ㄱ’가 단모음 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현실 발음과 차이가 있다. 실제 화자들의 발음을 보면,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아 보인다. 따라서 20세기 초에 모음 ‘ㅛ, ㄱ’가 단모음으로 정착되었다는 일반론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모음 ‘ㅛ, ㄱ’의 현실 발음의 흐름을 찾기 위해 20세기 초의 남아있는 음성 자료 중 유성기 대중음반을 통해 1920~40년대의 발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의 음성 자료를 통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는데, 이는 그 시기의 음성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드물게 보이는 발음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오새내(2005)는 1934~35년의 동화 구연가 김복진의 동화 구연 유성기 음반자료를 통해 서울말 모음의 음운론적 특징과 사회 언어학적 의의에 대해 알아본 연구이다. 그러나 발음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차재은(2005, 2006)인데, 차재은(2005)는 1935년 당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녹음한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음성 교재를 사용한 연구이다. 이는 1930년대 표준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음장, 높이, 강세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차재은(2006)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성 자료와 ‘김복진의 동화 구연 자료’를 중심으로 이 시기의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살폈다. ‘니, 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타 모음의 음성적, 음운적 특징을 살피고 있는데, 이들 모두 서울 지역이 중심이며 여타 방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전 방언권을 대상으로 발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이 시기의 음성 자료를 가지고 발음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세기 초 모음 ‘니, ㄱ’의 음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1928년에서 1943년까지 발표된 음반들로, CD 23장으로 되어있는 《신나라레코드》에서 발매한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음반 세트¹⁾이다. CD 23장에는 총 63명의 가수가 발표한 437곡이

1)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만수’ 교수님 소장본으로, 2012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 사용되는 곡은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가수의 노래 중 모음 ‘니’나 ‘기’를 포함한 가사가 있는 곡에 한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사용한 곡은 총 28명의 가수의 156곡이며, 모음 ‘니’와 ‘기’를 포함한 297음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음 ‘니, 기’는 다시 선행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초성이 없는 경우와 초성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초성의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 치경, 구개음, 후음의 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존에 연구되었던 小倉進平의 방언 연구 자료²⁾들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방언자료집(1~9)³⁾』을 참고로 하여 비교·대조하기로 하였다.

발음의 전사는 모음 ‘니, 기’의 음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음성 전사를 사용하였다. 전사 표기는 기본적으로 IPA를 따랐으며, 본고에서 사용한 표기는 다음과 같다.

년 겨울 본고를 지도해주신 권인한 선생님의 소개로 찾아뵈었다. 석사 학위 논문의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는 말에 흔쾌히 본 자료를 빌려주신 덕분에 이 자료를 연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2)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 下, 東京：岩波書店, 昭和19.”를 번역한 小倉進平(2009ㄱ, 나) 등을 참고하였다.
- 3) 《한국 방언 자료집》은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총 9권을 출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60대 이상의 남자를 제보자로 선정하여 1,782개의 항목에 대해 격식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한국방언조사질문지》(1980)를 작성·간행하고 이 질문지를 바탕으로 1980년 7월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방언연구회(2003), 『방언학사전』, 태학사. 참고·인용). 이 자료는 본고의 연구 자료와 시기의 차이가 좀 있지만, 80년대 60대 이상(60~80대)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제보자의 출생년도는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정도가 되는데, 유성기 음반 자료의 가수들 출생년도는 1910년대가 많다. 따라서 제시된 제보자의 연령대는 다르나 비슷한 세대의 제보자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1〕 음성 전사 표기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ㅅ
k, g	k'	n, ɳ	t, d	t'	r, l	m	p, b	p'
ㅈ	ㅉ	ㅊ	ㅌ	ㅍ	ㅋ	ㅍ	ㅍ	ㅎ
s, ʃ	s'	tʃ	tʃ'	tʃʰ	kʰ	tʰ	pʰ	h
단모음				활음				
ㅣ	ㅏ	ㅑ	ㅓ	/w/계(원순성) 활음		/j/계 활음		
i	y	i	u	w, ^{w4)}		j		
ㅕ	ㅗ	ㅛ	ㅜ					
e	Ø	ə	o	이어지는 음 ⁵⁾		장음(長音) ⁶⁾	끊어지는 음 ⁷⁾	
ㅈ		ㅊ		시작음 ~ (끝음)		:	-	
e ⁸⁾		a						

본 자료의 전사는 기본적으로 청취에 의존해 정밀전사 하였으며, 자연 청취로 구분하기 힘든 부분은 ‘프라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먼트 분석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시기도 오래 되었고, 유성기 음반의 특성상 잡음이 섞인 곳이 많아 청취와 ‘프라트’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는 것도 다소 있었다. 또한 청취로는 명확하게 음성 구분이 되지만, ‘프라트’ 분석으로는 잡음이나 악기 소리가 섞여 오히려 불분명한

- 4) 활음 ‘w’는 원순성, 즉 ‘프라트’의 스펙트로그램에서 곡선이 비교적 매우 짧은 소리를 적은 것이다.
- 5) 노래를 전사한 것이므로 가사의 한 음절이 두음 이상 이어지는 경우 시작소리와 끝소리 사이에 ‘~’ 표시를 한다. 시작소리와 끝소리가 같은 경우 ‘~’ 뒤에 끝소리는 표시하지 않는다.
- 6) 어휘적 장음이 아니라 음의 길이에 따른 장음을 나타낸다.
- 7) 스타카토가 되거나 휴지가 있는 경우 ‘-’ 표시를 한다.
- 8) ‘ㅕ’와 ‘ㅈ’를 모두 ‘e’로 전사했다. 이는 ‘ㅕ’와 ‘ㅈ’의 발음을 귀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개구도가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나 음의 높이나 길이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았다. 모음 ‘ㅕ’와 ‘ㅈ’의 발음의 구분이 ‘ㅕ, ㅈ’의 단모음화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

스펙트로그램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청취로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청취에 의한 음성 전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능한 한 청취에 최대한 의존한 전사임을 밝혀둔다.

3. 연구 결과

3.1. ‘니’의 실현 양상

3.1.1. 서북지역

[표 2-1-1] 서북지역의 모음 ‘니’

모음		개수 (54)	
이중모음	wɛ	34	47
	w̥e	13	
단모음	∅	2	
	e	4	
	i	1	

서북지역 가수의 노래에 나타난 모음 ‘니’는 총 54건 중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경우는 47건, 단모음으로 발음한 경우는 7건이다. 이중모음 [wɛ]로 나타난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단 2건만 단모음 [∅]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니’ 모음의 발음이 아닌 ‘네’나 ‘니’, ‘이’ 등으로 발음하고 있다. 평안남북도 방언의 음운에 대해 정리한 小倉進平 (2009-: 475~476)에 따르면, ‘외’는 경우에 따라 [∅]⁹⁾, [wɛ]¹⁰⁾, [ɛ]¹¹⁾ 등

9) [∅]로 발음하는 지방: 영변, 순천, 평양 지방 등
 10) [wɛ]로 발음하는 지방: 자성, 후창, 강계, 회천, 의주, 용암, 선천, 정주, 구성, 박천 지방 등
 11) [ɛ]의 발음: 자성에서는 [wɛ]라고 하는 것 이외에 [ɛ]라고도 발음하고, 안주에서는 [∅]라고 하는 것 외에 [ɛ]라고도 하며 순천에서는 ‘畏, 外’, ‘怪, 魁’, ‘衰’, ‘回, 會’를 예외

으로 발음된다고 하고 있다. ‘외’의 발음은 영변, 숙천, 평양 지방이 서울 지방([Ø]¹²⁾)과 동일하지만 평안남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we]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고, 박천, 안주 지방이 ‘[Ø], [we], [e]’의 세 가지의 발음을 가지는 것은 여기가 방언 특징의 충돌 지점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이중모음 [we]를 발음한 가수와 지역은 강홍식·김복희·선우일선·송달협·장세정(평양), 김해송(평남 개천), 이해연(황해 해주), 이화자(경기 부평), 황금심(서울) 등이다. 지역과 자료의 분포는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가수 중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평양 지역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평양 지역에서 [we]의 발음이 가장 많았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평양, 황해도, 경기도, 서울 등의 서북지역에서 모음 ‘니’가 다른 모음보다 [we]로 가장 많이 발음되었다고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단모음 [Ø]로 발음하는 경우는 <93. 외로운 [Ørə~un]>과 <206. 외로운 [Ø:rəun]>으로 두 번 나타난다. 이는 각각 ‘김해송(평남 개천)’과 ‘선우일선(평양)’의 노래를 전사한 것으로 小倉進平(2009-)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양 지역에서 [Ø]의 발음을 보이며, 개천 지역은 [Ø]로 발음하는 지역이라고 밝힌 영변과 순천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모음 ‘니’가 [Ø]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지역의 모음 ‘니’가 모두 [Ø]로 발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

없이 [ɛ], [kɛ], [sɛ], [hɛ]라고 한다. 중화에서는 [Ø]라고 하는 것 외에 [ɛ]라고도 하며, 각 지방에서는 한자음 외에도 ‘외롭다(oi-rop-ta, 孤獨)’를 [ɛ-rop-tal], ‘원몸(oin-mom, 全身)’을 [ɛn-mom]이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小倉進平, 2009-:475~476)

12) ‘외[Ø]’는 오늘날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강원, 황해, 평남, 함남의 대부분 및 충북, 경남, 경북, 함북의 일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재 한국어의 표준적인 발음이 되었다(小倉進平, 2009: 549)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를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Ø]가 한국어에 널리 쓰이는 ‘니’의 발음이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같은 평양이지만 [Ø]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외로운’을 발음한 것으로 유음이 후행하는 어두에 ‘외’가 오는 어휘인데, 이는 어떤 음운 현상이나 주 변이음이 실현될 자리가 아니라 이 지역의 모음 ‘이’가 [Ø]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타나 는 음운 환경이 음운적 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 어두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we]로 발음되는 목록에도 ‘외로운’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인접 지역, 혹은 같은 지역에서 심지어는 같은 화자가 모음 ‘이’에 대해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모두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우일선’의 경우 <203. 외로이 [wero:~i:]>, <206. 외로운 [Ø:rəun]>으로 같은 환경이지만 각각 이중모음과 단모음으로 서로 다른 발음을 하고 있다. 같은 화자가 같은 음절 위치와 음운환경에서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화자가 말을 하게 되는 환경이나 말의 빠르기 등 음운환경 이외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같은 화자가 항상 같은 발음으로 발음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의적 변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래라는 자료의 특성이 한 화자가 같은 어휘를 발음하더라도 항상 같은 발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발음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小倉進平(2009_L)에서는 서울 지역은 ‘이’의 발음이 [Ø]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유일한 서울 출신 가수인 황금심의 발음에서 단모음 [Ø]의 발음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¹³⁾.

13) ‘황금심’의 발음을 보면 <349. 외로운 [we:~ero~u:n]>, <350. 외로이 [we:roi]>, <352. 외론 [we~eron]>, <353. 외로운 [we:rəun]>으로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 편찬 『서울토박이말자료집(1-4)』에 나타난 어두에 위치한 ‘외’를 잠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2] 서북지역 - ‘피꿀’ 전사

k'we:k'ol	100.피꿀1, 102.피꿀3, 104.피꿀5, 107.피꿀8, 108.피꿀9, 110.피꿀11
k'wek'ol	101.피꿀2, 103.피꿀4, 105.피꿀6, 106.피꿀7, 109.피꿀10, 111.피꿀12

‘피꿀1~12’는 모두 ‘김해송(평남 개천)’의 ‘천리춘색’이란 노래에 나오는 가사로 ‘피꿀 피꿀’을 반복하는 후렴구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피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발음을 반복하고 있다. [we]와 [we]가 반복되는데, <346. 피꼬리 [k'ek'ori]>의 경우는 [e]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 개성 출신의 ‘최남용’의 발음이다. 연구개음을 초성으로 갖는 ‘니’의 발음을 보면 어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발음으로 보아, 대체로 음의 길이가 길면 [we]로 발음되고 길이가 짧으면 [we]로 원순성이 짧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피꼬리’의 경우는 원순성이 아예 탈락하여 [e]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314. 기회다오 [ki:hedaɔ]>, <315. 후회말고 [hu:wemalɔ]>의 경우 모두 ‘회’의 발음을 전사한 것이지만 각자 다른 발음을 하고 있다. <314>는 선행 음절 [ki]와 /h/의 후설 위치에 의해 /w/가 탈락하고 단모음 /e/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음 ‘니’의 발음이 단모음이 아니라 상향 이중모음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외동이/외동이		외국		원(左)		외삼촌		외양간	
we	16	we	16	we	6	we	7	we	2
wE	4	wE	4	ö	2	ö	1	wɛ	1
ö	4	wö	1					oy	5
		ö	4					öy	1

3.1.2. 동북지역

〔표 2-2-1〕 동북지역의 모음 ‘ㅚ’

모음		개수 (41)	
이중모음	we	19	25
	^w e	6	
단모음	Ø	11	11
	e	5	

동북지역 역시 이중모음과 단모음을 비교하면 이중모음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북지역과 비교했을 때, 단모음 [Ø]의 비율이 전체 41개 중 11개로 높은 편이다. 이는 동북지역의 모음 ‘ㅚ’는 단모음 [Ø]가 어느 정도 정착 중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¹⁴⁾ 동북지역에서의 모음 ‘ㅚ’의 발음은 [we], [Ø], [e] 등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w/가 선행하는 상향 이중모음이다. 한편, 小倉進平(2009: 499~502)에서는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ㅚ’는 [Ø]¹⁵⁾, [e]¹⁶⁾, [e]¹⁷⁾, [we]¹⁸⁾의 4가지로 발음된다고 보고된다.¹⁹⁾

14) 이지역의 모음 ‘ㅚ’의 음가에 대해 단모음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겪었다면 언제 어떤 순서에 의해 진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단모음([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비교적 단모음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가할 뿐이다.

15) 함경남도 풍산, 오로, 신흥, 정평, 영흥, 고원, 문천, 덕원, 안변, 신고산 지방, 황해도 해주, 웅진, 태탄, 장연, 은율, 안악, 황주, 재녕, 서흥, 수안, 금천, 곡산, 신계 등

16)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는 [Ø] 또는 [e]로 발음하고, 함흥에서는 ‘외국’, ‘괴수(魁首)’, ‘쇠잔’을 각각 [ε-guk], [kε-su], [sε-tsan]로 발음하기도 한다.

17) 함경남도 이원, 신흥, 안변 지방에서 ‘괴수(魁首)’를 [kε-su]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저하지 않고, 황해도와 금천 지방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18) 함경남도 갑산, 해산에서 나타나고, 경기 개성 지방에서도 나타난다.

19) 小倉進平(2009-)은 모음 ‘ㅚ’에 대응하는 발음을 모두 모음 ‘ㅚ’의 발음으로 상정하고 있다. 본고는 모음 ‘ㅚ’에 대응 전사되는 발음을 모두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모음 ‘ㅚ’의 발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음운 환경이나 그 밖의 요소들에 의해 변화된 변이음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 가능한 경우 해석을 가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2-2-2〕 동북지역 - '외' B

㉠ (‘외’가 어두에 오는 경우)		이중모음	we		6	7
			w ^h e		1	
		단모음		Ø		9
㉡ (‘외’가 어중에 오는 경우)		이중모음	we		1	2
			w ^h e		1	
		단모음		Ø		1
이중모음	9	단모음	10	총	19	

〔표 2-2-3〕 동북지역 - '외' A

① (모음이 후행)		이중모음	we		4		5
			w ^h e		1		
		단모음		Ø		3	
② (유음이 후행)		이중모음	we		1		2
			w ^h e		1		
		단모음		Ø		6	
③ (파열·마찰음이 후행)		이중모음	we		2		
		단모음	Ø		1		
이중모음	9	단모음	10		총		19

위의 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향 이중모음 [we]와 단모음 [Ø]가 나타나는 환경이 음운 환경에 따라 구분되는 양상을 찾기는 힘들다. 두 번째 표에서는 [Ø]가 ㉠이 9개, ㉡이 1개로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과 ㉡의 절대적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어두와 어중의 차이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동북지역의 초성이 없는 ‘외’는 /w/계 상향 이중모음과 단모음 [Ø]의 발음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小倉進平(2009-1)에서는 ‘외(外)’의 발음이 함남 원산을 비롯한 함경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ö²⁰]로 발음되고,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 [e], [e], [we], [we]

20) 본고의 자료에서는 [Ø]로 표기했으나,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등으로 발음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 2-2-4] 동북지역 - ‘ㄷ’ 초성

이중모음	we	2
	^w e	1
단모음	e	5

위의 표를 보면 초성을 ‘ㄷ’으로 하는 모음 ‘ㅛ’는 이중모음보다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선행 자음 ‘ㄷ’에 끌려 경구개 위치의 모음 [e]로 발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小倉進平(2009_ㄴ)에서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의 모음 ‘ㅛ’에 [Ø], [ɛ], [e], [we]의 4가지 발음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본 자료에서도 /e/와 /ɛ/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크게 다르지 않은 발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3. 서남지역

[표 2-3-1] 서남지역의 모음 ‘ㅛ’

모음		개수 (25)
이중모음	we	21
단모음	Ø	3
	e	1

총 25개의 자료가 나타내는 발음은 이중모음 [we]와 단모음 [Ø], [e] 3가지이다. 전체 수로 봤을 때, 이중모음이 21개, 단모음이 4개로 이중모음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小倉進平(2009_ㄴ)에서는 남부지방²¹⁾ ‘외’의 발음을 단모음 [ö]을 원음으로 보고²²⁾, 원음대로 발음하는 지방과 원음 외에 ‘웨²³⁾’, ‘위²⁴⁾’, ‘요²⁵⁾’,

21) 小倉進平(2009_ㄴ)에서의 남부지방은 충청도이남 지방을 말한다.

‘에²⁶⁾’, ‘오²⁷⁾’ 등²⁸⁾으로 발음하는 지방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음으로 발음하고, 다른 발음을 하는 지역도 원음도 함께 발음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음반 자료의 결과와는 거리가 있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상이한 결과를 두고 어떤 연구가 옳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2-3-2) 동북지역 - ‘외’

① (어두에 오는 경우)		이중모음		we		7	
		단모음		Ø		1	
② (어중에 오는 경우)		이중모음		we		3	
		이중모음		10		단모음	
이중모음		10		단모음		1	
총		11					

초성이 없는 ‘외’의 발음은 총 11개 중 이중모음 [we]가 10번, 단모음 [Ø]가 1번으로 이중모음이 절대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모음 [Ø]는 <247. 외로운 [Ø:~era:un]>으로 어두에서 발음되었다. 유일한 경우이지만, 음운적 제약이나 방해물 가장 적게 받는 위치인 어두에서의 발음 이므로 변이음이 아닌 모음 ‘니’가 가진 고유 음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중모음 [we]로 발음되다가 수의적으로 단모

22) ‘小倉進平’의 방언조사에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ö] 발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음으로 보았다.

23) 충남 홍산, 부여, 남포, 전남 목포, 완도 등

24) 충남 공주, 남포 등

25) 전북 정읍, 김제, 무주, 금산, 전남 장흥, 해남, 함평, 나주, 장성, 영광, 완도 등

26) 전남 목포

27) 전남 목포

28) 본 절에서 다루는 서남지방(충청도, 전라도)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발음만 밝힌 것이다. 동남지방은 다음 절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음 [Ø]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한국방언자료집》에서는 ‘왼쪽’의 발음에 대해 단양을 제외한 충북 지역²⁹⁾, 서천, 금산을 제외한 충남 지역³⁰⁾, 전남 지역³¹⁾에서는 [ö]로 발음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자료의 서남 지역에서 ‘왼쪽’에 대해 [ö] 이외의 발음은 [i], [we], [we] 등이 있었다.

또 <22. 되리니 [tØ:ri:ni:]>에서도 단모음 [Ø]를 볼 수 있다. 《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전남 지역의 ‘되(단위)’ 발음은 모두 [ö]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중가요 음반에 나타난 발음을 보면 <267. 되면 [twemjən]>이 보이므로, 모두 단모음으로만 발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살폈던 북부지방에 비해 비교 자료수가 적긴 하지만, 단모음 [Ø]의 분포가 선행 자음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음 ‘ㅜ’ 앞의 선행 요소와 관계없이 서남지방에서는 단모음 [Ø]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단모음 [Ø]의 초성에 따른 분포가 넓다고 하여, 북부 지역에 비해 서남지역의 단모음 [Ø]의 쓰임이 활발했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초성(선행 요소)에 따라 모음 ‘ㅜ’가 단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선행요소에 따라서 그 분포가 넓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고의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서남지역에서 여러 선행요소 뒤에서 ‘ㅜ’가 단모음 [Ø]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29) 진천, 음성, 증원(충주), 제원(제천),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30) 서산, 당진, 아산, 천원, 예산, 홍성, 청양, 공주, 연기, 보령, 부여, 논산, 대덕 등

31)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함평, 광산, 신안, 무안, 나주, 화순, 승주, 광양, 영암, 진도, 해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천, 완도 등

3.1.4. 동남지역

〔표 2-4-1〕 동남지역의 모음 ‘니’

모음		개수 (32)	
이중모음	we	23	24
	w_e	1	
	wi	1	
단모음	e	5	
	o	1	
	y	1	

32개의 자료 중 25개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고, 7개가 단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25개의 이중모음 중 주목할 만한 것은 1개의 [wi]이다. 모두 ‘니’나 ‘제/새’ 등의 발음이지만 이 한 경우는 ‘기’의 발음을 보이고 있다. 또 단모음도 다른 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앞선 다른 지역에서는 ‘니’의 단모음으로 [Ø]가 보였으나 이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기’의 단모음인 [y]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모음과 단모음에서 한 번씩 보이는 예들이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예들인 것으로 보아 동남지역의 ‘니’와 ‘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발음의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단모음에서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o]의 발음도 보여 ‘니’의 발음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많은 변이음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小倉進平(2009ㄱ)에서도 경상북도 지방의 ‘외’의 변화가 매우 복잡하다는 언급과 함께, 경상남북도의 발음을 원음은 [ö]로 보고 원음³²⁾, ‘웨³³⁾’, ‘왜³⁴⁾’, ‘이³⁵⁾’, ‘위³⁶⁾’, ‘예³⁷⁾’, ‘익³⁸⁾’ 등으로 발음된다

32) 경북 경주, 영천, 성주, 지례, 경남 동래, 합천

33) 경북 문경, 함창, 경남 합천

34) 경북 영주, 안동, 청송, 의성, 홍해, 포항, 영덕, 김천, 예천, 경남 밀양, 거창

35) 경북 예천, 상주

36) 경북 예천, 경남 창녕

37) 경남 합천, 거제, 통영, 남해, 하동, 마산

고 밝히고 있다. 동남지역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o]는 ‘진방남(경남 마산)’의 발음인데, 다른 ‘니’ 발음에서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방언자료집》의 경상남북도 편에서도 ‘원-(左)’, ‘외삼촌’에서 [we], [wE], [ö], [e], [E], [i]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발음이 제시되어 있지만 [o]로 발음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小倉進平(2009ㄱ)에서 밝힌 것처럼 경상도의 ‘니’ 발음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발음이 있었다고 기술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외’가 ‘이’로 발음되기도 하는 대구 지역에서 ‘괴(怪)’, ‘괴(魁)’를 ‘고’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발음하는 상주 지방에서 ‘괴(怪)’, ‘괴(魁)’를 ‘고’, ‘쇠(衰)’를 ‘식’, ‘회(回)’를 ‘히’로 발음하는 등 ‘오’ 및 ‘익’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小倉進平, 2009ㄱ; 426)고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언급처럼 ‘니’가 ‘고’로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 가능성은 <329. 외양간 [o~jaŋk'an]>에서 모음 ‘니’ 뒤에 활음 /j/가 후행하는 것으로 보아 모음 ‘니’의 [oj] 발음이 후행하는 /j/와 만나 활음 /j/가 탈락한 결과가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wi] 발음이다. 이는 <198. 헛되여 [hə~t'wija]>로 이 발음은 경북 성주 출신인 ‘백년설’의 발음이다. 동남지역에서 ‘니’가 다양하게 발음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했는데, 그 중 모음 ‘니’의 발음과 ‘기’의 발음이 혼란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방언자료집》에서 경상도의 ‘되(단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de], [dE], [dwe], [dwi], [di] 등의 발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wi] 발음을 하는 지역은 주로 경남 창녕 지방으로 나타난다.

[y] 발음은 <51. 턱을괴고(귀고) [gy~igo:]>에서 보인다. 이는 모음 ‘기’의 단모음 발음으로 연구개 자음 뒤에서도 ‘니’와 ‘기’의 발음이 혼동됨

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e] 발음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발음인데, 《한국방언자료집》에 따르면 ‘되’의 발음조사에서 가장 많은 발음이 [e], [E]인 것을 감안했을 때 동남방언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발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0. 뽕면은 [bemjəni:n]>, <333. 뽕읍고 [p'eopk'o]³⁹⁾>도 단모음 [e]로 발음하고 있다. 양순음 뒤에서 원순성을 가진 /w/계 이중모음이나 단모음 [Ø]로 발음되지 않고, 원순성이 없는 [e]로 발음되는 것이 눈에 띈다. 역시 동남지역의 ‘니’가 ‘ㄴ’, ‘ㄹ’ 등 여러 발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2. ‘ㄱ’의 실현 양상

3.2.1. 서북지역

[표 3-1-1] 서북지역의 모음 ‘ㄱ’

모음		개수 (47)	
이중모음	wi	39	40
	wi	1	
	we	3	
단모음	y	2	
	i	1	
	u	1	

서북지역의 ‘ㄱ’ 발음은 47개의 발음 중 [wi/w_i]가 4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모음은 [y], [i], [u] 등으로 발음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we]의 발음이다. 이는 모음 ‘니’의

39) ‘뽕읍고’에서 ‘뽕’이 왜 경음처럼 발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의 ‘뽕면은’과 비교했을 때, [e]가 아니라 그보다 개구도가 더 작은 [e]로 발음된 것은 /p/를 발음할 때의 긴장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음과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귀’를 [we]로 발음한 것은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해연’과 평양 출신의 ‘강홍식’과 ‘장세정’의 발음이다. 반면, 小倉進平(2009ㄴ:476)에서는 평안남도 지방에서 ‘위(違, 危)’, ‘귀(歸, 貴)’, ‘휘(揮)’, ‘취(取)’ 등은 서울 지방과 같이 [ui], [kui], [hui], [ʰui]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평안남도 개천 출신의 ‘김해송’의 발음에서는 <112. 귀여운 [ku:jəun]>처럼 [u] 발음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출신인 ‘황금심’도 ‘귀’ 발음을 한 번 했으나 발음이 [ʷi]로 나타난다. 본고의 자료에서는 小倉進平(2009ㄴ)에서 보고한 [ui]의 발음이 서북지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귀’의 단모음화한 발음으로 보이는 [y]의 발음도 나타나는데, 이는 각각 ‘이화자(경기 부평)’, ‘장세정(평양)’의 발음이다. 이들의 공통 환경 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 小倉進平(2009ㄱ)에서는 ‘바위’에 대해 경기 경성, 개성, 장단, 연천에서 [pa-wi]로 발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들이 ‘귀’의 발음을 하고 있긴 하지만, [wi]의 발음도 함께 보이고 있다.

또 <112. 귀여운 [ku:jəun]>의 경우는 [u]로 발음되는데, 서북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예이다. 小倉進平(2009ㄱ)의 ‘바퀴’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기 개성, 장단, 황해도 일대⁴⁰⁾에서 ‘박퀴[pak-kʰu]’로 발음한다는 결과가 있다. 또 ‘사마귀’에 대해서도 ‘사마귀[sa-ma-gu]’로 발음하는 지역에서 역시 서북지역인 황해(황주, 곡산), 평양, 평북(박천, 영변, 희천, 구성, 강계, 자성, 후창)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귀’의 [u] 발음은 서북지역에서 종종 나타났던 발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중모음 [wi]의 발음은 다른 대부분의 선행요소들이 올 때와 마찬가지로

40) 황해도 금천, 연안, 해주, 웅진, 태탄, 장연, 은율, 안악, 재령, 황주, 서흥, 신계, 수안, 곡산 등

지로 그 수가 가장 많은데, 小倉進平(2009ㄱ)에서도 서북지역의 ‘귀(耳)’의 발음에 대해 경기, 황해, 함남 지역에서 [kwi/k’wi]로 발음됨을 밝히고 있다.

3.2.2. 동북지역

〔표 3-2-1〕 동북지역의 모음 ‘귀’

모음		개수 (43)	
이중모음	wi	24	30
	w _i	6	
	uj	2	
	we	1	
단모음	y	2	
	i	8	

동북지역의 모음 중 [wi/w_li]가 30개로 이중모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향 이중모음 [uj] 발음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서북지역에 서처럼 모음 ‘니’의 발음과 같은 [we] 발음도 나타난다. 단모음에서는 [y]가 두 번, [i]가 여덟 번으로 [y] 발음과 더불어 ‘ㅣ’로 발음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다. 小倉進平(2009ㄴ: 427~429)에서는 지방에 따라 [ui], [i], [u] 등으로 발음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중 [ui]를 원음으로 보고, 인근의 여러 도에서 ‘위(ui)’가 [i]로 변하는 것은 함경남도에서 북청, 함흥 지방에 많고, 함경북도에서는 성진, 길주, 나남, 경성 지방에 존재할 뿐이며, ‘위(ui)’가 [u]로 변하는 것은 황해도보다는 함경남도에서 좀 더 현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안변 부근을 중심으로 남부에 더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자료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발음들을 나타내고 있다.

모음 ‘니’의 이중모음 발음처럼 [we]로 발음하는 발음은 동북지역의 ‘귀’ 발음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유일한 발음이다. 이는 김용환(함남 원산)

의 <61. 까마귀 [k'ama:~gwe:]> 발음으로, 서북지역에서 본 <317>과 같은 어휘이다.

단모음 [i]로 발음되는 것 중 6개는 모두 ‘바귀’를 발음한 것인데, 선행하는 자음 /ㄱ/의 발음이 /ㄱ/에 비해 성대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조음점(입술)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 원순성 /w/가 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71. 설새 [suj:lse]>, <53. 한대취어 [handɛʃujjə]>의 경우 [uj]의 하향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71>은 ‘김정구(함남 원산)’의 발음이고, <53>은 ‘김용환(함남 원산)’의 발음으로, 이 발음을 한 ‘김정구’와 ‘김용환’이 모두 함경남도 원산 출신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예가 단 두 개뿐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본 연구 자료 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함남 원산 지역에서 하향 이중모음 [uj]의 발음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기’의 발음에서는 상향 이중모음의 발음을 하고 있으므로 ‘기’의 발음이 환경에 따라 또는 수의적으로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는 모음 ‘기’가 단모음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떠나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이는데, 이로써 하향 이중모음([ui]), 단모음([y]), 상향 이중모음([wi]) 이 동시대에 수의적인 발음으로라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까지 하향 이중모음 발음이 남아있는 것은 ‘기’의 변화 속도가 ‘니’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2.3. 서남지역

〔표 3-3-1〕 서남지역의 모음 ‘기’

모음		개수 (15)	
이중모음	wi	11	13
	^w i	2	
	we	1	
단모음	y	1	

총 15개의 서북지역의 모음 ‘기’ 중 13개가 [wi/^wi]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고, 이중모음 중 한 번은 모음 ‘니’의 이중모음 발음과 같은 [we]로 발음되었다. 모음 ‘기’의 단모음 [y] 발음은 한 번 나타난다. 반면, 小倉進平(2009_ㄴ)에서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모든 지역에서 원음([ui])으로 발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사위’에 대한 발음조사를 한 것을 보면, 충북 지역에서는 [uy]⁴¹⁾, [u]⁴²⁾, [wi]⁴³⁾, [we]⁴⁴⁾ 등으로, 충남 지역에서는 [uy]⁴⁵⁾, [u]⁴⁶⁾ 등으로 발음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⁴⁷⁾. 또 전라남도에서 ‘쉬/쉬슬다⁴⁸⁾’를 발음한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yü]⁴⁹⁾로 발음하고, 담양, 곡성, 완도 등의 지역에서만 [yi] 발음을 함께 하고 있다. 또 신안 지역에서는 ‘쉬’에 대해 [ö]의 발음을 보이기도 한다.

41) 진천, 음성, 청원

42) 음성, 제원,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43) 중원

44) 괴산

45) 서산, 당진, 아산, 천원, 예산, 홍성, 청양, 공주, 연기, 보령, 부여, 서천, 대덕

46) 논산, 금산

47)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연기’는 충남 소속으로 되어 있다.

48) 쉬: 파리의 알 / 쉬슬다: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

49) 이 자료에서는 /y/를 율음 표기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율음을 /j/로 표기하였다.

[y]의 발음을 한 가수는 [wi] 발음도 함께 하고 있는 ‘이난영’이다. [y] 발음은 서남지역의 모음 ‘기’ 발음에서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거나 다른 자료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서남지역의 ‘기’ 발음으로 [y]가 발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성기 대중가요 음반의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y]가 발음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당시 서남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수의적 발음이나 음운론적 변이음 등) ‘기’의 단모음 [y] 발음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음 ‘니’의 이중모음 발음처럼 발음한 [we]는 서남지역의 모음 ‘기’ 발음에서 한 번 나타나는 예로 이 경우가 유일하다.

3.3.4. 동남지역

[표 3-4-1] 동남지역의 모음 ‘기’

모음		개수 (40)	
이중모음	wi	23	27
	wi	4	
	we	6	
단모음	y	1	
	i	5	
	e	1	

총 40개의 발음 중 33개가 이중모음이고 그 중 27개는 [wi/wi]의 발음이다. [wi/wi] 발음이 가장 많은 것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것인데, [we]가 40개 중 여섯 번 발음되었다는 것은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어휘(‘휘파람’)에서 나타나는 발음으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면, 단모음은 40개 중 7번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도 [i] 발음이 많이 보인다. [y]와 [e] 발음은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나고 있다. 小倉進平(2009-)에서 ‘위’에 대한 발음 조사 결과를 정

리한 것을 보면, 경상남북도에서는 원음([ui])⁵⁰⁾, ‘이’⁵¹⁾, ‘위’와 ‘이’⁵²⁾로 발음한다고 하면서, ‘이’로 발음하는 지역은 경남 대부분 지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의 자료에서 [i] 발음을 보면, 모두 경남 지방 가수들의 발음이며, 또한 [wɪ] 발음도 경남 지방 가수의 발음인 것을 알 수 있다.

단모음 [i]는 초성이 ‘ㄷ’일 때(2번)와 ‘ㄱ’일 때(3번) 나타나는데, 단모음 [y]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 모음 ‘기’가 동남지역에서 [wi]로 가장 많이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기’를 이중모음으로 인식하고, 연구개음인 ‘ㄱ’ 뒤에서 수의적으로 /w/가 탈락된 [i] 발음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 ‘ㄷ’ 뒤에서는 경구개음인 ‘ㄷ’의 조음위치에 끌려 경구개 위치에서 조음되는 모음 [i]로 발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 발음은 경남 울산 출신의 ‘고복수’의 발음이다. 한편, 《한국방언자료집》의 경남지역에서의 ‘쉬/쉬슬다’의 발음을 보면, ‘기’를 [yi], [ü], [wi], [wi], [we] 등으로 발음하고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자료는 어휘 수가 적어서 다양한 발음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으나 [e] 발음은 본고의 자료 중 모음 ‘기’에 대한 발음에서 동남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발음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발음으로 동남지역의 지역적 특징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모음 ‘니’의 이중모음처럼 발음된 [we]가 6번 나오는데, 이는 모두 ‘휘파람’이란 어휘의 발음으로 ‘백년설(경북 성주)’의 발음이다. 똑같이 ‘백년설’이 발음한 <189. 귀밑머리 [kwimi:nmø:ri~]>의 경우는 [wi]로 발음한 것으로 보아 어휘 개별적인 발음이거나 특정 환경에서 화자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발음일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단모음 [y]는 ‘고복수(경남 울산)’가 <18. 휘도는 [hy~

50) 경북 영주, 안동, 청송, 의성, 홍해, 포항, 영덕, 영천, 성주, 지레, 경남 울산, 창녕

51) 경북 대구, 상주, 문경, 함창, 김천, 경남 동래, 함천, 거창

52) 경북 예천, 경주, 경남 밀양

i:doni:n]>을 발음한 것으로 동남지역의 ‘기’ 발음에서 유일한 경우이다. 역시 ‘고북수’의 다른 발음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발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리 및 논의

자료의 ‘니, 기’ 음가를 살핀 결과 ‘니’와 ‘기’는 전체적으로 /w/계 상향 이중모음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단모음 [Ø], [y]는 많지 않지만 발음이 되고 있었고, ‘기([y])’ 보다는 ‘니([Ø])’의 단모음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Ø]는 동북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y]는 그 지역 분포가 넓어 ‘기’의 단모음이 더 지역 차 없이 발음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북지역에서는 ‘니’와 ‘기’ 모두 각각의 단모음 [Ø]와 [y]가 두 번씩 발음되고 모두 /w/계 상향 이중모음 [we], [wi]가 각각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동북지역의 발음에서는 모음 ‘니’가 단모음 [Ø]로 발음된 것이 41개 중 11개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음되고 있었다. 이중모음 [we], [we] 등으로 발음된 것은 25개로 두 배 이상 많은 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빈도로 발음되는 것이다. 또 이 지역에서 모음 ‘기’는 단모음 [y]가 서북지역과 마찬가지로 두 번만 발음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모음 ‘니’의 단모음이 ‘기’의 단모음보다 더 많이 나타났던 것도 이처럼 동북지역에서 ‘니’의 단모음 발음이 많이 발음되었기 때문이다. 서남지역에서의 ‘니’, ‘기’ 발음은 역시 [we]와 [wi]의 발음이 각각 가장 많이 발음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니’의 경우 [Ø]가 세 번, ‘기’의 경우 [y]가 한 번으로 적은 수이지만 단모음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지역에서의 발음은 ‘니’에서는 [Ø] 발음

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에서는 [y] 발음이 한 번 보인다. 다만, ‘니’의 발음에서 다른 지역의 ‘니’ 발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y] 발음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모음 ‘니’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동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실히 단모음 [Ø]의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지역적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기’의 경우는 나타나는 수는 적으면서도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많은 수를 보이지 않고 골고루 1~2개 씩 발음되어 ‘니’와 발음 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선행 자음별로 봤을 때는 단모음화된 발음이 특정 환경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경향이 읽히지는 않았으나 초성 자음의 조음 위치가 뒤쪽에 있는 경우 활음 /w/가 약화되거나 탈락해서, [ʷi], [i]의 발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역을 막론하고 이중모음 [wɛ], [ʷɛ]와 [wi], [ʷi]의 /w/계 상향 이중모음 발음이 각각 주를 이루고 있다. 모음 ‘니’에서는 단모음 [Ø], [e], [ɛ] 등이, ‘기’에서는 [i]가 종종 나타났다. 또 ‘니’와 ‘기’ 두 모음이 각각 서로의 발음처럼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많이 보이지 않는 예이기 때문에 주의적이거나 예외적인 발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성기 대중가요 음반을 통해 봤을 때, 모음 ‘니, 기’는 이미 상향 이중모음이 되고 있었고, 단모음([Ø], [y])은 북부 지방에서 간혹 나타나는 발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모음 ‘니’는 하향 이중모음([oi/oj])의 발음을 보이지 않은 반면, 모음 ‘기’는 하향 이중모음([ui])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음 ‘니’에 비해 모음 ‘기’는 발음의 변화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Ø], [y]와 그 외에 나타난 다른 변이음들(‘니’의 경우 [e], [o], [i] 등, ‘기’의 경우 [u], [i], [ɛ] 등)을 같은 지위의 음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하향 이중모음 [uj]를 포함하여 통시적인 변이음으로 생각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공시적으로 지역이나 화자 개인, 또는 개별 어

회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공시적 변이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20세기 초 유성기 대중가요 음반이라는 한정된 자료 내에서 모음 ‘ㅁ, ㅁ’의 음가 확인에 초점을 둔 연구였다. 때문에 기존의 문헌 자료들을 통한 연구에서 있었던 문자의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본고에서 다룬 자료는 이 음성자료의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다른 음성 자료들을 계속 더 연구한다면, 이 시기의 모음 ‘ㅁ, ㅁ’의 음가에 대해 더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음성 자료는 그 종류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920~40년대의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어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음성 자료들을 더 가까이 해서 연구 자료로 한다면 국어사에서 비교적 연구 성과의 공백이 많은 20세기 초의 국어학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세기 초 모음 ‘ㅁ, ㅁ’의 음가와 나아가서 이 시기의 음성 자료의 폭넓은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신나라레코드,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 23CD set.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1-9.

국립국어연구원(1998-2001),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1-4.

2.

강보경(1999), 이중모음 ‘외, 위’의 변화에 대한 지리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곽충구(1980), 十八世紀國語의 音韻論的 研究, 국어연구 43,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무립(2002), 국어음운 현상의 성격과 범위, 한국어학 17, 한국어학회, pp.15-28.

김봉국(2010), 경남 남해 지역의 언어-모음 음소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배달말 46, 배달말학회, pp.1-26.

김완진(1964), 후기 중세국어 이중 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 논문집 4.

김완진(1978), 음운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김주필(1994), 17·8世紀 國語의 口蓋音化와 關聯 音韻現象에 대한 通時論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도수희(1983), 한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부음 y에 대하여, 한글 179, 한글학회, pp.82-132.

백두현(1992),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백두현(1997),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모음론, 한국문화 2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1-44.

신승용(2003), 공식적 /o/, /u/ 옴라우트의 성격과 ‘니/oy/’, ‘기/uy/’의 변화,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신지영(2011), 음운론과 어문 규범,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pp.29-49.

오새내(2005), 20세기 초 서울말 모음 음운현상에 반영된 계층적 지표: 1930년대 김복진의 동화구연유성기자료의 분석, 국어문학 40, 국어문학회.

오종갑(1997), w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월인.

이기문(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병근(1973),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 이승녕(1971), 十七世紀國語의 音韻史的 考察, 동양학 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이유기(2007), 유성기 음반 대중가요의 음운 현상, 한민족문화연구.
- 이진호(2010), 『국어 이중모음의 구성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이중모음』, 태학사.
- 전광현(1978), 십팔세기후기국어의 일고찰, 어학 5, 전북대 어학연구소.
- 조아람(2012), 1920~40년대 모음 ‘ㅁ, ㅂ’의 발음 연구: 유성기 대중가요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재은(2005), 1930년대의 한국어 음장에 대한 연구: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의 음성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차재은(2006), 20세기 초의 한국어 모음체계: 1930년대 음성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영미(2003), 태안지역어 ‘ㄱ, ㄴ’의 모음체계, 한말연구학회 발표집.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모음체계, 국어문학 25, 국어문화회, pp.655-680.
- 최전승(1987), 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모음체계의 변화, 어학 14,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한영균(1995), ‘ㄱ, ㄴ’ 단모음화와 방언 분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허웅(1952), ‘애, 에, 외, 익’의 소리값, 국어국문학 1, 국어국문학회.
- 허웅(1965), 『국어 음운사』, 정음사.
- 홍윤표(1997), 근대국어자료, 『국어의 시대별변천 연구』, 국립국어원.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 研究 : 上, 下, 岩波書店, 昭和 19.
- 小倉進平, 이상규·이순형 교열(2009), 『조선어방언사전』, 한국문화사.
- 小倉進平, 李珍昊·飯田綾織 譯註(2009), 『소창진평과 국어음운론』, 제이앤씨.

Abstract

Respect to pronounce of 'ㅛ', 'ㅜ' vowels in the 1920s~1940s

Jo, A-ram

The studies is to observe the phonetic value of ‘ㅛ’ and ‘ㅜ’ based on audio materials of gramophone records of pop music in the 1920s~1940s.

The materials used to this thesis are the 23 compact discs (CD) which were originally recorded on gramophone records released from <Sinnara Records>. I have studied 297 syllables including vowels of ‘ㅛ’ and ‘ㅜ’ among 156 songs which a total of 28 singers sang.

First of all, in the case of ‘ㅛ’, it was most pronounced as on-glides with /w/ and the rest of all was pronounced as monophthongs like [ø], [e], [i], [o], [y] etc, including [wi] pronounce like a diphthong of ‘ㅜ’. In comparison with a monophthong [y] of ‘ㅜ’, a monophthong [ø] is more pronounced and most of them were pronounced in the northeast. On the contrary, the pronunciations of the southeast had a variety of ones compared to other regions. A pronunciation of vowel ‘ㅛ’ was already dominated by pronounced on-glides with /w/ throughout the regions except the northeast. In addition, a monophthong [ø] was rarely pronounced depending on phonemes or individual differences.

Next, a vowel ‘ㅜ’ was also pronounced most as on-glides with /w/. There were a few pronunciations like [we], [ʷe], as pronounced as a vowel ‘ㅛ’, but the difference with there were pronunciation of an off-glides [uj] though there were a few. The pronunciation like [y], [i], [u], [e] etc, in monophthongs appeared and the pronunciation of [y] among them hardly appeared compared to the monophthong [ø] of ‘ㅛ’. There were not many regional differences as there were seen two times in the northwest and northeast each and one time in the southwest and southeast each.

A vowel ‘ㅛ’ wasn’t pronounced as off-glides with /j/ which are [oi/oj]. On the contrary, a vowel ‘ㅜ’ was pronounced as an off-glides /j/ which is [uj]. In light of these, it is experted that a vowel ‘ㅜ’ has been made a slower rate of

pronunciation variation than a vowel ‘ㅜ’.

【Key words】 audio materials, gramophone records, phoneme, ‘ㅜ, ㅠ’ vowels, pop music, praat program, diphthong, monophthong

논문 투고: 2014년 10월 31일, 심사 완료: 12월 3일, 게재 확정: 12월 5일